



비자금 파문과 주가

염택선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증권·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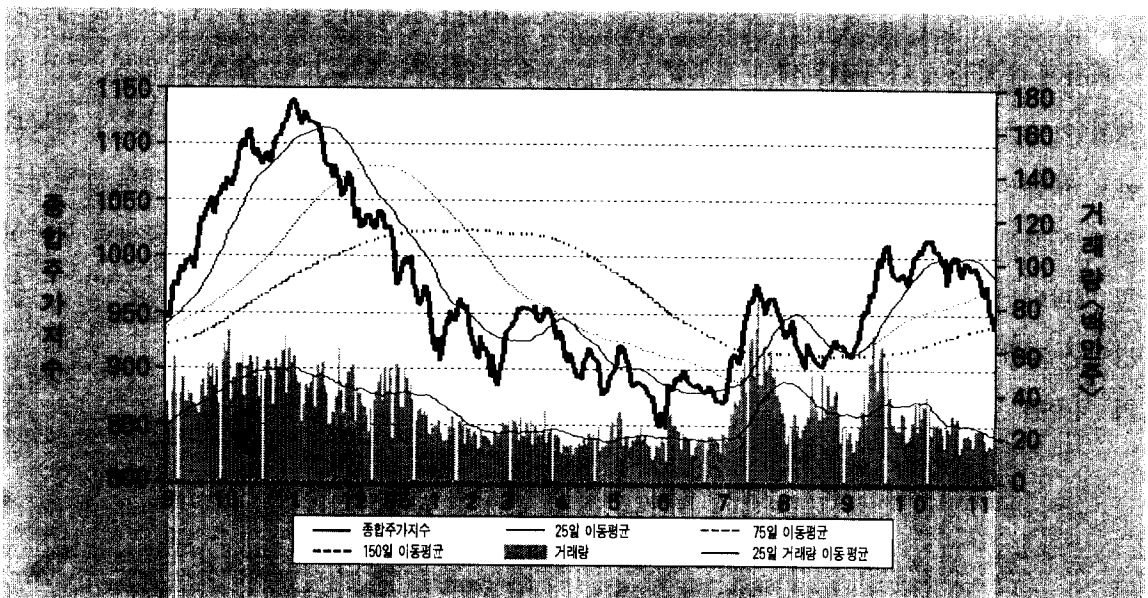
정국 경색에 따른 주가 하락

전직 대통령 비자금 파문으로 소수 그룹의 총수가 구속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검찰의 수사가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상황까지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비자금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회사채 금리가 반등하

기 시작했다.

또한 비자금의 증권계 유입 여부 조사설이 유포되었으며, 외국 증권사가 반도체 경기의 하락을 진단하였다.

이러한 악재로 인해 기관 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어 소극적인 투자 전략이 전개됨에 따라 종합주가지수



는 비자금 사건이 폭로된 지난 10월 19일 1,000.22 포인트에서 11월 15일 현재 937.04 포인트로 60 포인트 이상이 하락하는 급락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객 예탁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자금의 증시 유입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비자금 파문 등 여러 악재의 영향으로 지난 10월 30일 2조 5,774억 원 규모에서 11월 14일 현재 2조 3,818억 원으로 약 2,000억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또한 투자자들의 소극적인 투자 심리로 인해 연일 2,000만 주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비자금 파문의 조기 매듭 기대

회사채 수익률이 다시 11%대에 진입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은행, 단자社 등의 자금이 投信社로 유입될 가능성 등 주가가 오를 호재는 도처에 산재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핵심 우량주를 적극 사들여 지수를 방어한 기관 투자자들이 당분간 불투명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장세 개입을

꺼린 채, 주식 시장 내외 환경을 주시하는 뚜렷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외국인들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은 비자금 파문으로 인해 빚어질지도 모르는 한국의 정치 불안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됨에 따라 일시적인 조정 장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자금 파문의 조기 매듭이 주식 시장 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비자금 및 선거 정국 도래에 따른 불안감, 외국인 매수세의 한계, 고객 예탁금의 감소 등 시장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20 포인트 내외까지의 일시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비자금 파문의 조기 매듭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점차 비자금 파문의 악재 효과가 희석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증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수혜처로서 재부각하여 주식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